

지역 매아리

폭염 속 농작물 관리 철저

완주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농작물 관리와 농업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 폭염 시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벼는 논물 흘려대기로 온도저하를 유도하고, 규산과 가리비료를 추가로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열병, 딸구류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발작물은 스프링클러 등을 통한 관수를 실시해 토양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질, 풀, 퇴비로 토양을 피복해 수분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채소류는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과수는 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일소과(햇빛태임)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늘어뜨리도록 배치한다.

가족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하며 환풍기 등을 최대한 이용해 시원한 바람이 축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치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농작업 중 휴식 시간을 오랜 시간 가지보다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1의 물에 소금 1/2스카라)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피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은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며, 의식이 있을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만경읍,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김제시 만경읍(읍장 최병인) 맞춤형복지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구 내 위기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맞춤형 공적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이 달 말까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로 인해 한여름 건강관리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중점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협업체를 취약 독거노인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대상자의 복지욕구와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긴요한 공적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공모에 선정돼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활력플러스 공모 선정

농식품부, 전국서 최종 10곳 확정 완주군 포함... 군, 70억원 확보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공모에 선정돼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육성으로 사회적일자리를 만들어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와 음식문화가 중심이 되는 치유와 공유개념을 도입한 완주 융복합 식품산업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국비 49억, 군비 21억)을 투입한다.

농식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Wealthy), 자연식품과 생태를 고려한 식문화개발(Wild), 지역농식품을 통한 복지(Welfare), 지역생활방식 유도를 통한 소비창출 Way of life)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단 운영(송광인단장), 조직 및 활동가 양성, 웰빙푸드 구축, 웰컴푸드 실현,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W푸드테라피 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한 완주 융복합 식품산업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국비 49억, 군비 21억)을 투입한다.

농식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Wealthy), 자연식품과 생태를 고려한 식문화개발(Wild), 지역농식품을 통한 복지(Welfare), 지역생활방식 유도를 통한 소비창출 Way of life)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단 운영(송광인단장), 조직 및 활동가 양성, 웰빙푸드 구축, 웰컴푸드 실현,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W푸드테라피 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다. 앞서 완주군은 전북도평가에서 8개 시·군 중 1위로 선정됐으며, 이후 농식품부의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이번 10개 시군에 포함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공동체 활성화, 식품산업 융복합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완주의 활동가들의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로 활력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첨단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성공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성공하여 첨단농업의 메카로 굳건한 입지를 다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의 기능이 집약화된 첨단농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김제시와 전북도는 타 지역보다 발빠르게 사전준비를 진행했으며 사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제시는 인근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과학원 등 농업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고,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인접해 있어 스마트팜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팜 선도에 최적지임을 입증했다.

전국 최대규모의 스마트 혁신밸리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김제시는 전북도, 농업인단체 및 농식품부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연차별 조성·운영계획에 따른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이 이끌어 가는 등 스마트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김제시가 첨단농업의 메카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협조해 주신 전북도, 전북대학교, 농업인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도내 농생명 기관/업체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저소득층 250세대 대상 타이머 록 설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8월 한 달 동안 김제시 복지기동대 특화사업으로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250세대에 대해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록)를 읍면동 복지기동대원들이 자원봉사로 설치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열린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고 복지기동대원 1인당 저소득계층 1세대를 발굴 추천하고 직접 설치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가스·화재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록)는 설정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로 가스이용 부주의로 인한 가스·화재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김제시 복지기동대는 2016년 7월에

발대식으로 발족 되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조직이다.

주요임무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기용품(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등)교체 및 수리, 가스·보일러 점검 및 수리, 단열·방풍작업, 상수도·하수도·화장실 배관 점검 및 수리, 그 밖에 소규모 집수리 및 청소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연인원 1,163명의 복지기동대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350세대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했고 올해 또한 현재 1,050명의 복지기동대원이 370세대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김제시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3일 고산면 읍내리 소재 고산천 오성교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물놀이에도 '안전 제일'

완주군, 고산천서 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

완주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완주군은 3일 고산면 읍내리 소재 고산천 오성교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 및 위험구역 출입금지 안내, 심폐소생술 시연, 화재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완주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가정용소화기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 15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물놀이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완주군 의용소방대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화재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가정용 소화기 400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관내 물놀이 명소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홍보 등을 통해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물놀이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ogwon' (진안고원) featuring ginseng products. The ad includes the text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Republic of Korea Ginseng Special District Jin'an Gogwon) and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Evaluation Award Gold Medal). It also features the Korean characters '真心' (True Heart) and '홍삼주' (Ginseng Wine) in large, stylized font. Images of ginseng roots and bottles of ginseng wine are shown.